

# 목포시, 근대건축 활용 콘텐츠 개발 '박차'

### 1897년 개항 이후 건축물과 경관·바다 연계 스토리텔링 추진 목포예술인 관련 기념관이나 낙지·홍어·고깃배 전시관도 조성

목포시가 목포 원도심에 산재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1897 개항 이후 목포는 격자형 도로망에 기반을 둔 산업형 근대 계획도시로 발전, 근대 건축문화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돼 있어 이들 건축물과 경관을 바다와 연계시켜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크게 1지역군(정적인 지역)과 2지역군(동적인 지역)으로 나뉜다.

1지역군은 A지역-심상소학교 일대, B지역-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일대(윤학자 여사 지역 포함), C지역-옛 일본 영사관 지역 등 근대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공간 위주로 구성되고, 2지역군은 D지역-목포진과 해관부지, E지역-갑자옥 사거리(근대 상업지역), F지역-화신백화점과 오거리 연결지역 등 총 6개 구역으로 세분화된다.

이를 기반으로 목포시는 1지역 군은 거주 목적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근대 건축'으로, 2지역 군은 '거리에 웃(이야기)을 입혀라'는 테마로 정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볼거리·먹거리·즐길 거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포시는 옛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일제 수탈 기념관'으로, 옛 호남은행은

'한국 금융박물관'으로, 옛 동본원사는 '근대 불교 박물관'으로, 옛 일본 기독교회는 '근대 기독교 박물관'으로, 갑자옥 모자점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 근대건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시된 곳은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의 위치.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은 '모자 박물관' 등으로 지정 문화재와 비지정 건축물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과 음악, 미술, 무용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목포 출신예술인들과 근대건축물을 연계시켜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만들어 홍보·교육 공간으로 활용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창과 해안가 주변에 산재된 구 목포세관 창고와 부둣가 창고 등을 활용해 낙지 박물관, 홍어 박물관, 소형 고깃배 박물관 등 흥미로운 주제의 소형 전시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 '머리 맞았다'

### 시민단체 등 '전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개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의료계가 가족 친화 사회 분위기 조성 아이 낳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았다.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등은 최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사업 결과에 대한 개선방향 및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자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의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기획한 '아빠와 함께하는 소풍', '찾아가는 남편교실' 프로그램에 144가족 453명이 참여하여 아빠와 자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청년층의 인식개선을 위해 운영한 '인구 서포터즈'는 도내 4개교 116명의 대학생과 1개교 22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해 인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한 단체별로는 ▲종교계에서는 혼인전 교육 및 생명나눔캠페인 ▲의료계에서는 난임 및 한의약사후 건강관리, 1일 8시간 근무 준수 여건 만들기 ▲언론계에서는 정책 홍보와 인식개선 캠페인 ▲시민사회계에서의 임신부 배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여 임신·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상황을 발표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정읍시, '에코축산' 기본계획 이행 가속도

정읍시가 축산환경 개선과 가족건강을 위한 에코(Eco) 축산 청정 정읍 기본계획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에코 축산 청정 정읍 구축을 위해 축산환경개선과 질병관리 등을 위한 16개 사업을 오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한다.

주요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소통형 축산악취 관리, 시민 공감 청정 축산 구축, 문제해결형 에코축산 등이

이번 사업에는 국비 1570억원과 도비 170억원, 시비 1060억원, 민자 1600억원 등 총 4400억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분야별 우선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분류해 시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축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019년도 우선과제로 선정된 시민소통형 축산 악취 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총 12억7500만원을 투입해 축산악취의 개선과 절감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 악취 제로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가치 높이기 총력

### 로고 심벌·서체 등 기본 디자인 개발 이달중 용역 발주 포털·선박·공항 등 대대적 홍보...관광객 유치도 나서

목포시가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목포 대표 브랜드로 선정한 '낭만항구 목포'에 대한 디자인 개발과 함께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목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23일 목포시는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와 관련 기본형과 응용형 등 두 가지 형태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이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번 용역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브랜드 디자인은 물론 로고 심벌, 전용 색상, 전용 서체 등을 개발, 앞으로 각종 시정 자료나 대내외 홍보 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심벌·로고 타입·시그니처 등 3가지 타입의 기본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

한다. 세부적으로 로고 심벌은 가로형·세로형·한글형·영문형 등 4가지로, 전용 서체도 한글·영문·한문·숫자·기호 등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또 응용 디자인은 서식류, 사인류, 홍보류 등으로 각각 제작해 응용이 가능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게 목포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종식 목포시장은 "낭만항구 목포 브랜드 디자인이 개발되는 내년 3월에 특허청 상표등록까지 마칠 계획"이라면서 "대외적인 목포시 이미지 홍보는 물론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낭만항구 목포' 브

랜드 홍보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포털 사이트에 목포시 브랜드 검색 광고와 키워드 광고를 게재하고, 목포-제주를 오가는 선박(퀵메리호) 내 식당과 휴게소, 출입 계단 등에 목포 대표 브랜드 홍보를 추진기로 했다.

또 인천 공항철도 역사를 비롯해 12개소의 지하철역, 용산역, 센트럴 시티, KTX 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도시권 홍보에 나서는 한편, 중앙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과 스포츠 광고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목포시 공보과장은 "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에는 총 3억8000만원이 투입된다"면서 "내년 4월 해상케이블카 개통과 맞물려 대표 브랜드와 함께 '맛의 도시'를 적극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내년부터 1시간으로 확대

목포시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무료 주차시간을 대폭 늘렸다.

23일 목포시는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무료 주차 시간이 짧다는 여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30분 무료에서 60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요금은 최초 60분은 무료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또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60%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주차장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 주차장을 내년 부터 카드 결제도 병행 시행하기로 했다. 목포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무료 주차시간 확대, 카드 결제 등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된다"면서 "도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 순창군 '찾아가는 실버시네마' 인기

"경로당으로 재미있는 영화보러 오세요."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실버시네마'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다. <사진>

지난해부터 시작한 실버시네마 사업은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 고전부터 최신영화까지 상영해주고 있다.

한편 실버시네마는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전원주택, 부지 급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

# 덕남동 임야 1~2년내 대박납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일시불조정가)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문의. 010-6834-7400